

무주~서울 시외버스 이용 편해진다

지정좌석제·예매 서비스 시행

무주~서울 간 시외버스 이용이 보다 편해질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6일 장수를 출발, 장계와 안성, 무주를 경유해 서울로 가는 버스 하루에 4대 의 지정좌석제 및 예매 서비스가 시작됐다.

예매는 인터넷(www.bustago.or.kr / txbust-money.co.kr) 과 모바일 앱(버스타고 / 시외버스 모바일)으로 가능하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기범 교통팀장은 "그간은 서울에서 무주로 오는 편도 노선에서만 지정좌석제와 예매 서비스가 제공됐었다"며 "당연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상행 노선에서는 대기시간도 길고 사람들이 불편한 시에는 줄만 서다가 못타는 경우도 있어 불편이 컸었다"고 전했다.

"이제 그런 불편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우리 군에서는 지정좌석제 및 예매서비스 시행과 맞물려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과 장수군, 전북고속은 무주와 안성, 장수, 장계터미널과 협력해 지난 3월부터 지정좌석제 및 예매 서비스 시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신 유통체계 구축 본격화

수매 지원사업 설명회

무주군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추진하는 수매(매취)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7일 무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농가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수매(매취)지원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무주군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추진하는 수매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7일 무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이 자리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그동안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조성하고, 조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한 만큼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농산물 수매(매취)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수매한 농산물을 저장, 판매(유통비용 포함)할 때 생기는 손실을 행정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1백억 원)으로 보상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 지원을 하는 품목은 사과와 포도, 생오미자, 아로니아, 생천마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무주군은 대상 품목을 차츰 늘려 나간다는 방침으로 수매(매취)지원사업 외에도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차액지원 사업, 최저생산비 지원사업(농산물 도

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산지 폐기되는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50% 이내) 지원)을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지원한다.

무주군은 민선 7기 공약인 신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백억 원을 조성해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관심도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자율책임제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운영 및 갱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은 7월 중순까지 영업주 자율신청으로 신청을 받은 후, 심의 위원회 거쳐 다중이용업소 심사·선정을 거친 뒤 9월에 최종 공표돼 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하게 된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으로는 공표일 기준으로 3년간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

행위가 없었는 뿐 아니라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도 위반사실이 없고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자격 요건이 된다. 신청 접수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가 되며,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현판게시 및 소방안전교육·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지난 26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장영수 군수와 이강호 구청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교류 통해 상생 발전 도모

장수군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자매결연 협약

장수군이 인천 남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업, 문화, 경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를 펼친다.

장수군은 지난 26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장영수 군수와 이강호 구청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군과 남동구는 상호 간 농업과 문화, 경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및 민간교류 등을 펼쳐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7일에는 자매결연 일환으로 장수군청 광장에서 장수군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남동구 통장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판촉행사에서는 장수군 특산물인 장수 사과와 오미자, 토마토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남동구 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두 지역의 우의를 공고히 하고 상호 신뢰 속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농업, 문화, 관광, 행정 등 각계분야에 걸친 교류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국가암 검진 수검률 향상 나서

진안군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초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년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흡수년도 출생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지역 9만7000원, 직장 9만6000원)인 자다.

검진 종목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이며 암종별 1~2년 주기로 실시한다. 무료 암검진 후 암으로 확진될 경우 최대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안군 5월말 기준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18.3%다. 진안군 보건소는 저조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7월중 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암 검진기관인 진안군의료원, 마이외과정형외과, 우리가정의학과를 직접 방문하여 국가 암 조기검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 암 검진 대상자가 당해연도 내 검진을 받지 않고 개별 검진이나 치료를 통해 암으로 확진 받은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암검진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과협회 서남부권지부 회원들 반딧불사과의 고장 무주서 회합

한국사과협회 서남부권지부(지부장 문광희) 하계교육이 27일 무주군 안성면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은 고품질 사과생산 기반을 만들고 지역 간 교류를 통해 화합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를 비롯한 당진과 김천, 거창, 함양, 남원, 장수, 진안 지역 사과 농가 4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과나무의 하계관리를 비롯해 빠른 추수에 대비한 착색관리 요령 등을 공유했으며, 무주지역 과원에 직접 나가 현장교육을 받았다.

회원들은 "반딧불사과 재배 현장을 보면서 정보나 기술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서남부권 사과가 맛도 품질도 가격도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생산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 자리가 가격하락 등 어려운 재배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올해도 당진, 김천, 거창, 함양, 남원, 장수, 진안, 무주사과의 대중과 소득증대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을 위한 소식지 만들 것"

진안군 소식지 통신원 역량강화 워크숍

진안군 군정소식지인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 통신원들이 27일 전신진안군 일원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소식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허남근 회장을 비롯한 통신원 16명이 참석했다.

통신원들은 홍보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신안군청 기획홍보담당관실을 찾아 신안군 현황을 청취한 뒤 양 지역 소식지 제작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소식지 분야는 물론 양 지역의 역사, 문화, 지역특산물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어 통신원들은 글쓰기 강의와 별도의 토의시간을 갖고 독자들에게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은 행정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의 제작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첫 사례로 손꼽힌다. 주민 통신원들이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게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획, 지면 배정, 편집 등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점이 높게 평가 받아 2016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식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은 A4 사이즈 책자형으로 매월 발행한다. 독자는 현재 1만1000여명이다. 구독신청은 진안군청 기획감사실 홍보팀(063-430-2840)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